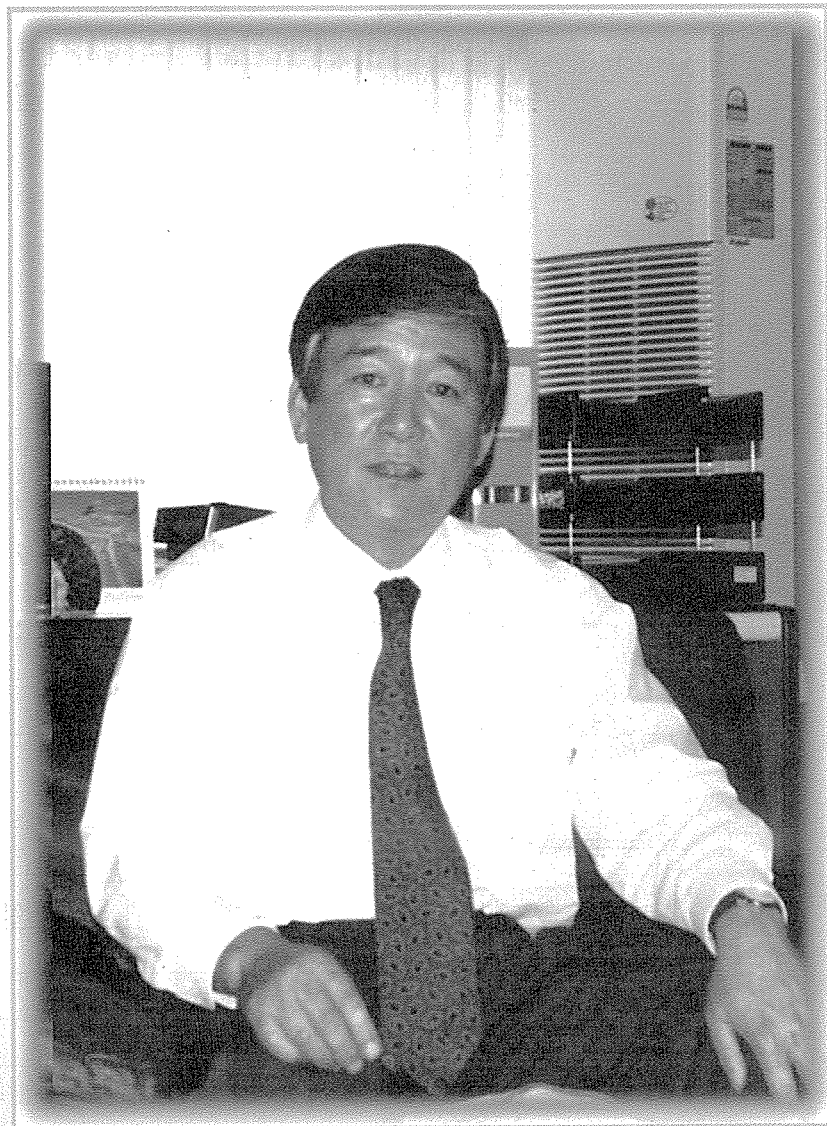


어린이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

소년한국일보사 윤국병 사장의 어린이 신문 만들기

소년한국일보. 지금 3~40대의 성인이라면 초등학교 시절 한번쯤은 접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자녀가 매일 아침 이 신문을 기다리고 있다. 올해로 발간 38년째를 맞는 소년한국일보는 교육적이면서도 정의로움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다. 그래서, 그 신문을 보며 자란 성인들에게는 향수를, 이 시대를 사는 어린이에게는 진한 감동을 주는 신문으로 성장해 왔다.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매일 배달되는 소년한국일보를 이끌고 있는 윤국병 사장은, 부모에게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정보를, 또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보는 지혜를 전달하는 어린이 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연구를 멈추지 않는다. 윤사장에게는 인생을 더욱 보람되게 살도록 하는 큰 일을 겪은 경험이 있다. 아웅산 사건 당시 큰 부상을 입었던 것. 그 경험으로 인해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 누구보다 강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가슴깊이 간직한 그는, 그래서 어린이 신문 만들기에도 남다른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.



▶ 어린이의 정서발달과 사고력·판단력을 기르는데 언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, 어린이 대상 신문을 만드시면서 갖고 계시는 신념과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.

- 어린이 신문도 신문입니다. 면수는 적어도, 정보전달·보도·비판·계도 기능 등 종합 일간지로서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. 여기에 더해서 어린이가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.

그만큼 기사 선택에도 신중을 기하고, 같은 현상이라도 앞으로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.

▶ 소년한국일보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지난 4월~5월까지 전국 초등학생 대상 금연글짓기 현상 공모 행사를 가졌습니다. 올해로 4번째 실시된 이 행사를 마치고 나신 소감과, 그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- 행사의 성과가 가시적인 것은 아니지만,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. 올해 금연글짓기 작품의 내용은 정말 알차고 감동적이었습니다. 또 응모작이 많다는 데에 놀랐습니다.

그리고 작품의 기본 바탕에,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하기로 했다는 아버지와, 아버지를 위해 금연을 권유하는 아이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사실 금연글짓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생

각합니다. 어린이의 생각이 성인의 금연에 큰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좀더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.

▶ 요즘 학교 조기교육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. 과연 일찍 보낸 만큼 전인교육 차원에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전체적인 조기교육보다는 재능이 있는 아동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
언어·컴퓨터 교육을 통한 두뇌 개발은 빠를수록 좋습니다. 단, 암기나 주입이 아닌,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데 초점을 두어야 후에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.

사실 조기 교육이 논란이 되는 것은, 내 자녀가 남보다 앞섰으면 하는 학부모들의 과욕일 뿐입니다.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보다는 자녀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과 시험을 거친 후 그야말로 영재교육 차원에서 조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

▶ 최근 일본만화와 인터넷·PC 통신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성인문화가 개방되면서 어린이 정서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문화 속에서 어린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?

- 현재로서 어떤 규제조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. 그럴수록 비공개적으로 몰래 보는 아이들만 늘어나겠지요. 결국 해결방법은 하나 뿐입니다. 대항할 수 있

는 건전 문화를 개발·보급하는 것이지요.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건전한 오락·만화가 개발되어야 하고 신문도 좋은 만화와 소설을 게재하는 등, 청소년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

▶ 지금 IMF한파로 전국이 어수선한데, 이 국가적 난국에 대해 어떻게 어린이들을 교육시켜야, 희망적인 국가 장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?

- IMF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. 그 잘못으로 인해 지금 어린이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

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더 큰 피해자이기도 하구요. 어린이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결과가 되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.

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, 이 고통을 함께 이길 수 있는 강인함을 키워주는 것, 그리고 절약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어서,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그리고 이 기회를,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정신을 키워주는 계기로 삼는 일도 필요합니다.

▶ 요즘 아이들에게는 꿈이 없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...

- 꿈은 미래에 대한 목표입니다. 그리고 인생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지요. 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.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같은 다변화 사회에서는 어느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성공하는 것도 꿈이라고 생각할



- ◎ 인천 제물포고 졸업 (1960)
- ◎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(1966)
- ◎ 한국일보사 입사 (1965)
- ◎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연수 (1985)
- ◎ 한국일보 편집국 정치부장, 편집국 부국장, 홍보실장, 편집국 국차장, 편집국 국장대리, 편집국장 (1987~1993)
- ◎ 한국일보 편집담당 이사 (1994)
- ◎ 한국일보사 이사 겸 뉴욕해외제작본부장 (1994)
- ◎ 한국일보사 이사 겸 비서실장 (1997)
- ◎ (주) 소년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(1998)

니다.

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, 어른들이 꿈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높은 지위나 명예만이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탓일 겁니다.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꿈을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.

다시 말해서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, 크든 작든 잘 살피서 키우고 육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.

언젠가, 스위스의 수상이 아들이 실업학교에 합격했다고, 함께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현지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.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. 아이들의 꿈에 대해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어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.

▶ 요즘 어린이들의 조화로운 정신적·육체적 성장을 위해 한말씀해 주십시오.

- 요즘 어린이들이 정신적으로 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나 이것은 어른들의 책임입니

다. 지나친 과보호와 공부 위주의 생활이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보다는 피해가게 만든다고 할까요. 그만큼 육체적으로도 허약해지게 되고….

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강인하게 훈련시키려는 부모들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.

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립정신을 키우고, 운동이나 야영프로그램에도 참가시키고 뭔가 모험적인 경험을 갖도록 하는 일 등등. 풍부한 경험이 인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고 긍정적으로 만들지 않을까요.

▶ 살아오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거나, '인생의 전환점이었던' 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십니까?

- 32년동안 기자생활을 해오면서 정치·경제·사회부 기지를 비롯해 신문사 내의 모든 직위를 가져봤고 나름대로 평탄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. 인생의 전환점이라기 보다는 기억에 남는 일은, 아웅상 사건 때 큰 부상을 당하면서 생사의 갈림길

에 섰던 일입니다. 그때 정말 많은 인재를 잃었습니다. 안타까운 일이지요.

사건 후 병원에 있으면서, 아이들, 아내, 부모님, 직장 동료 등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났습니다. 가정과 직장의 소중함이랄까,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생각, 조직과 가정 안에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.

사건 당시 북한의 소행임을 직감적으로 느끼면서, 분단의 쓰라림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, 분단만 아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참 컸습니다.

이런 경험들이 제가 사는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면 조국에 대한 애정, 삶을 좀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일겁니다.

▶ 평소의 건강관리는 어떻게…?

- 주말에 등산을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. 대신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쪽으로 생각합니다.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니까요. ☞